

# 천연꿀 한·미FTA 협상 영향 분석(총괄)

최규철 사무총장

최근 한·미FTA 협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, 이에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는 축산품목 중 민감품목으로 보호 받기위해 협회자체 한·미FTA협상 심포지엄을 통해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또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협상에서 우위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.

지난 4월호에는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, 정부 대응자료 및 대외에 홍보자료로 활용하기위해 영향분석 세부내용을 게재 하였고, 금번 내용은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 하였다.

## 1. 영 향 예 측(총괄)

- 수입증가로 인해 40%정도의 벌꿀 가격의 하락이 예상됨
  - 현재 8,000원/kg 수준인 아카시아꿀 도매가격은 개방 초기 2-3년 내에 5,500원/kg, 5년경과 후 4,500원/kg대까지 하락 가능
- '04년 93.9%인 국내 벌꿀 자급율은 미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벌꿀 수입 급증으로 인해 최대 50%까지 하락 가능
  - 특히 미국산은 국내 가정용 제품 벌꿀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시장 잠식가능성이 큼
- 개방초기에 부업규모의 양봉농가를 중심으로 이탈농가 증가 예상
  - 단기적으로는 개방초기 2~3년 내에 부업규모인 10군~99군 사육농가의 절반 정도인 9천 농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
  - 중·장기적으로는 현재 국내 사육농가수인 4만농가의 절반 수준인 2만농가 수준으로 감소 할 것으로 전망.
- 국내 천연꿀시장은 생산량감소 및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연간1,3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됨.
  - 생산액 감소분으로 인하여 1,000억원, 가격하락에 따른 감소분 350원
  - 기타 양봉산물 생산량 감소 및 연관산업 위축으로 인한 피해도 예상됨

## 2. 협상 대응방안

- 천연꿀 양허시 국내 양봉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한·미FTA 협상에서 예외품목으로 분류되도록 추진하되
- 불가피하게 양허시 국내피해를 최소화 하는 양허 안 검토
-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수급불안정에 대비하여 safeguard등 안정장치를 확보
-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 타국 벌꿀 우회수입 가능성 차단

## 3. 국내 대책 추진 방향

- 농가 구조조정
  - 양봉업의 규모화와 전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영세농 중심으로 탈농 및 전업을 유도하고, 탈락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생계 및 전업자금 지원
- 가격·품질 경쟁력 제고
  - 외국산 꿀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고품질의 꿀 생산
  - 고품질 벌꿀의 생산을 유도하는 기능성 밀원식물 식재
  -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
- 유통구조 개선 노력
  - 저품질 유통 방지를 위한 유통체계 확립 및 수입꿀의 국산둔갑 판매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홍보를 통해 고품질 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
- 소득안정 방안 마련
  - 양봉 자조금을 통한 소비촉진 홍보 및 수급안정

